“경험 전제한 ‘가수계’보다 기존 제도 개선을”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 ‘가수계’ 제도 모색 학술대회

이혼 등 세속생활 정리 않고도
‘승려생활 경험’ 기회 제공 취지
출가자 급감 따른 고민서 비롯

승가질서 훼손 가능하단 우려와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의문 제기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한국불교계가 몇 년 새 이어진 출가자 급감이라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계종은 임시수계를 뜻하는 ‘가(假)수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수계 제도의 현대적 복원과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가수계 수용의 모색과 발전 방안(조계종 교육아사리 승범 스님)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수계 제도의 적절성 논의(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자랑) △근현대 대만불교의 출가와 수계(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완 스님) △조선시대 작법귀감의 수계의식(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강향숙)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가수계’ 제도는 1981년 단일계단 정비 전인 근대기 한국 사찰에서 임시로 계를 내리던 수계식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조계종이 검토하고 있는 ‘가수계’는 일반인이 승려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발심해 정식출가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

이자랑 교수는 이를 출가자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장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음부터 경험을 전제로 이뤄지는 장기 임시출가는 자칫하면 승가의 질서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험을 중시한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미 행자 6개월, 사미·사미니 4년이라는 출가 절차가 정립된 상황에서 또 다른 예비승 신분인 ‘가수계’가 이뤄질 경우 애매한 신분으로 인한 승가 화합 저해도 우려했다. ‘가수계’ 출신은 다른 승가구성원에게 별개의 지위로 이해되기 쉽고, 당사자도 스스로를 허드렛일이나 하는 신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계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정식출가를 원할 때 앞서 보낸 시간은 제외한 채 다시 행자-사미·사미니 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미 행자 퇴사 비율이 20~5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한 이 교수는 “종신출가를 전제로 승가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일탈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출가한 자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자로 나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이러한 발제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계종 내에서 시행 중인 출가장려 제도인 △소년출가 △청년출가 △단기출가 △4년 단기 출가 △은퇴출가 △출가학교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가수계 제도는 현행 출가장려 제도들과 중첩되는 면들이 있다”며 “제도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들 출가제도와 가수계 제도와의 관계성을 고려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 승범 스님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너무 방임하면 승가의 위상에 문제가 된다”며 “가수계로 문호를 개방해 효과를 얻으려면 적절한 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장출가에 대한 대책 △가수계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 △가수계자에 대한 혜택과 의무 등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를 마련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누구라도 출가해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보고자 한 기획의 시작일 뿐”이라며 “가수계 제도를 통해 출가자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차후 정식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는 게 오늘 학술대회의 방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에 ‘희망꽃 피우기’

라오스 아동병원과 MOU 논의
취약가정 환아 지원 사업 확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7월 2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진행될 신규 MOU 사업 관련, 주 파트너인 아동병원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사진>

복지재단은 곧 체결될 신규 MOU사업을 통해 라오스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빈곤가정 난치병 환아들이 지원을 통해 완치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은 “재단은 차기 MOU를 통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라오스 난치병 환아 지원에 집중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회복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정서 및 학습 지원 등 환아들의 지속 가능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도선사, 혜성 대종사 원적 5주기 추모 다례

도호 스님 “제자들 정진” 다짐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7월 25일 호국참회원에서 진불장 혜성 대종사 열반 5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사진> 2018년 원적에 든 혜성 대종사는 생전 청담학원과 혜명복지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사회복지 불사에 앞장섰다. 다례에는 청담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생전 혜성 대종사와 인연이 깊었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이날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은 상좌를 대표해 “은사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출가자의 길을 걸은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다”며 “60년의 출가생활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상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재차 당부하셨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은사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제자들은 앞으로 더욱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도선사 회주 혜암 동광 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혜성 대종사가 수행자로서 아난존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동광 대종사는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꼭 이 도량에 다시 오셔서 후학과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혜성 대종사를 추모했다. 윤호섭 기자

불광사, 화합 기원하며 ‘1080일 기도정진’

7월 22일부터 1080일 기도 돌입
“참회·성찰로 불광 되찾겠다”
보광 스님, 동참자들 격려하며
“기도로 무거운 짐 함께 나누자”


불광사는 7월 22일 ‘동명 스님과 함께하는 불광화합을 위한 천팔십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불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불광사·불광법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기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그 어떤 훌륭한 덕목보다도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임을 철저하게 깨우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 불광사의 화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된 목소리가 불광사 경내에 울려 퍼졌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보광당에서 ‘동명 스님과 함께하는 불광화합을 위한 천팔십일 기도’(이하 1080일 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1080일 기도에는 ‘참회와 성찰’의 백팔일 참회를 열 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1080일 기도는 지난달 6월 취임한 주지 동명 스님의 고민 끝에 시작됐다.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내부 분규에서 50여 년 전 광덕 스님이 추구했던 불광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정진뿐임을 알아차렸다. 사찰답고, 스님답고, 불자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었다.

이날 1080일 기도 입재식에는 초청법사로 법석에 오른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법문에 앞서 동참자들을 격려했다. 보광 스님은 “기도를 위해 모인 동참자들이야말로 불광법회의 알짜배기”라면서 “주지 동명 스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흔들림 없이 기도 정진한다면 1080일 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1080일 기도를 이끄는 동명 스님의 각오도 새롭다. 입재식에서 동명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동참자들에게 예를 갖춰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이어 스님은 “‘마하반야바리밀’이라는 화두를 갖고 3년간 정진하겠다”며 1080일 기도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참회와 성찰로 갈등으로 얼룩진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도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포교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창건주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불광 화합을 기원하는 1080기도는 2026년 7월 4일까지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02)413-6060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반야불교문화硏 학술지 ‘프라즈냐’ 창간

불교적 해법 연구·모색
9월 30일까지 원고 모집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위기와 전쟁, 계층 갈등, 빈부 격차 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지가 창간된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학술지 ‘프라즈냐’를 창간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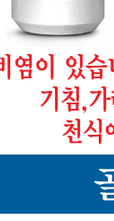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창간하는 학술지 ‘프라즈냐’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계층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불교사상 전반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발굴하는 것도 학술지의 주요한 기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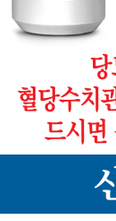
오는 10월 창간하는 ‘프라즈냐’의 원고마감은 9월 30일이며 심사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투고방법과 논문작성규정은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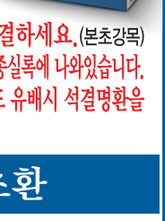
한편, 2011년에 창립된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 사상 연구에 큰 업적을 낸 학자들에게 반야학술상을 시상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불교학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성민 기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